



보도시점 2025. 9. 25(목) 10:00 배포 2025. 9. 25(목) 10:00

## “2025 농산어촌디자인 공모전” 10개 우수작품 전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9월 25일~28일까지 전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방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 농산어촌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10개 작품을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시한다.

본 공모전은 농산어촌다움과 지역특성을 살린 디자인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 담당자, 지역주민 등이 각 지역의 우수한 디자인을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 조경·건축·도시계획 등의 분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지역성, 심미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의 마을을 선정했다.

▲전북 진안군 「마령활력센터」는 전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강원 인제군 「하추리산촌마을」은 산과 계곡 등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공동체와 방문객이 함께하는 공간을 집적화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 강진군 「달빛한옥마을」은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동체 마을이며, ▲충북 제천군 「산수유 농촌마을」은 마을 자원을 관광과 비즈니스로 확장하면서도 농촌다움을 지키는 마을이다. ▲전북 군산시 「추억뜨락」은 근대건축물과 상업시설을 연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거와 현재, 다양한 세대가 연결되는 마을이다.

▲경북 문경시 「문경큰사람마을」은 폐교를 재생해 도시민과 주민이 교류하는 마을이며, ▲강원 횡성군 「고라데이마을」은 움막, 옛우물터 등을 치유·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산촌마을이다. ▲전남 곡성군 「하모니 힐링스쿨」은 주민공동체가 폐교를 무장애·복지시설로 조성하여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한 마을이다.

▲경남 남해군 「남해서면 북부지역 다랑논 일대」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퍼머컬처를 이어가는 공간이며, ▲전남 고흥군 「연소마을」은 농업과 어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과 삶이 공존하는 마을이다.

선정된 작품은 9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전시될 예정으로, 방문객들은 10개 지역의 농산어촌다움을 느끼고 농산어촌 디자인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오는 9월 26일(금) aT센터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며, 농업·농어촌특별위원장의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산어촌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지키고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 농산어촌디자인 공모전 우수작품(10개) 1부. 끝.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엄성준 (02-6260-1221)
		담당자	전문관	한호경 (02-6260-1226)

**\* 세대와 이웃을 어우러 이어가는 천년의 마령, 진안군 마령활력센터**

마을경관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전경

백과사전이 가득인 공간의 조화

세대와 자연경관이 이어지는 열린공간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 전세대가 공감하는 마령'**  
 마령활력센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복지 공간으로,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정과 어울리게 설계하고, 주민들의 구거민을 리용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교류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양희, 심민기**  
(전북 진안)

전북 진안군 「마령활력센터」

**\* 하추리산촌마을**

하추리산촌마을 전경

하추리산촌마을 주민역사도서관

마을자원활용, 방갈로형 주민숙박터

**'주민공동체와 방문객이 함께하는 산촌'**  
 하추리산촌마을은 주민역사 체험관, 카페 등 정비된 공간으로 다채로운 주민의 휴식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자 방문객의 힐링터로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지역특성을 축적해 쌓는 용역으로 조성하여, 산과 계곡, 푸른 농경지, 임업이 어우러진 지역 정체성을 담아내 원색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입니다.

**강성애, 윤종욱**  
(강원 인제)

강원 인제군 「하추리산촌마을」

**\* 월출산 강진다원과 어우러진 달빛한옥마을**

전망대에서 바라본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달빛한옥마을 전경

주민공동체활동, 밤의 힐링

주민공동체활동, 안민교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동체 마을'**  
 월출산의 강진다원 인근에 자리한 달빛한옥마을은 전체가 한옥으로 조성되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주민들은 공동 정제와 문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단체별을 막기 위해 자체 규약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생활 편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농촌다움을 지키며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마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전남 강진)

전남 강진군 「달빛한옥마을」

**\* 삶과 쉼(休)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산수유 농촌마을**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와 쉼, 상천리 산수유마을 볼 전경

산수유와 함께하는 마을축제

주민공동체활동 환경정화

**'산수유와 함께 미래를 디자인하는 상천리'**  
 상천리 산수유농촌마을은 금수산의 거문산, 청룡호가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귀농인 및 조성해 체험프로그램으로 주민공동체를 화합하고, 산수유 식재와 '마을10경' 발굴, 산수유 축제를 통해 특색있는 관광의 브랜드를 만들며, 목화축제, 들레린, 경관조형 등 마을 자원과 관광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농촌다움을 지키고 마을정원을 꾸준히 디자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태, 이필주**  
(충북 제천)

충북 제천군 「산수유 농촌마을」

**\* 근대건축물과 상업시설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 추억뜨락**

역사건물의 색상을 살린 시설전경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생터

**'마을과 새대를 잇는 새로운 경제 무대'**  
 주민 참여로 조성된 '추억뜨락'은 근대건축물과 중심도로, 상업 시설을 연결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간입니다. 상생장터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상인, 구거민이 함께 어울리며, 역사 건물의 색채를 살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조형준**  
(전북 군산)

전북 군산시 「추억뜨락」

**\* 폐교에서 피어난 사람과 시간이 머무는 마을 - 문경큰사람마을**

폐교지와의 재상과 농촌경관 보전, 문경큰사람마을 전경

잡이형 농촌휴양공간

**'폐교를 재생한 잡이형 농촌휴양공간'**  
 문경큰사람마을은 폐교를 재생해 농촌 정원을 지키며 도시인과 주민이 교류하는 잡이형 휴양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계절별 체험과 직거래 시장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존 건물과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해 정서적 부담을 최소화한 지속 가능한 마을 모델을 제시해가고 있습니다.

**조일신**  
(경북 문경)

경북 문경시 「문경큰사람마을」

**\* 고라데이 마을공동체의 끊임없는 도전**

옛우리들 환경친화적 생태연못  
하늘에서 본 마을전경  
주요인 산공유방

**'주민이 만든 치유와 체험의 산촌, 고라데이마을'**  
편안한 휴가를 기원모 주민이 직접 공간과 프로그램을 자유 채팅 중심으로 계구상하여 마을을 새롭게 바꾸고, 주민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계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산촌 마을로, 농산어촌 디자인의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이재명**  
(광진 황성)

**\* 자연·역사·사람이 하나되는 고장, '하모니 힐링스쿨'**

옛 학교터를 이용한 힐링스쿨 전경  
지역주민이 하나되어 힐링할수 있는 공간  
하모니 다목적 강당

**'옛 교정에서 되찾은 주민공동체의 힘'**  
계교된 명호초등학교가 주민들의 손으로 '하모니 힐링스쿨(명실센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삼산을 디자인 콘셉트로 무장해 복지 채우시심을 갖춘 이곳은 주민과 주민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지역 재균형을 높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힐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유성환**  
(진남 곡성)

강원 횡성군 「고라데이마을」

전남 곡성군 「하모니 힐링스쿨」

**\* 남해서면 북부지역 다랑논 일대**

경관이 아름다운 다랑논 전경  
다랑논을 활용한 방문자 관리 체험  
마을축제 다랑논 마라톤 대회

**'자연과 지역공동체가 맞어낸 남해 다랑논'**  
남해 서면의 작은 마을들은 구불구불한 다랑논 경관과 자연 속 힐링공간을 지녀내며, 토종에 복합과 올인인 농장 등 지속가능한 농업과 파이런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주도로 일대 다랑논 축제가 북방문화 공간 조성, 국제행사 개최 등은 자연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김미정**  
(경남 남해)

**\* 바다를 향해 달리는 연소마을**

연소마을 전경(주해지불경관)  
바다머개기 주민소득공동체 활동  
주민공동체활동, 환경정화

**'자연과 삶이 공존하는 거제도 연소마을'**  
조선시대부터 편리한 송림술과 안일 해안이 아우러진 연소마을은 농업과 어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농산어촌입니다. 주민들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둘째김의 관광 자원을 가꾸며 환경을 정화하고, 마을과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하생, 오준혁**  
(전남 고흥)

경남 남해군 「남해서면 북부지역 다랑논 일대」

전남 고흥군 「연소마을」